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되어가기

Becoming a Nurse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Writing a Gratitude Journal

김현아¹

Hyeon-ah Kim¹

요약

본 연구는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체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에게 감사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여 간호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갖도록 하여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간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Graneheim & Lundman이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감사일기 작성 경험이 있는 강원도 소재 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22세, 6명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 결과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핵심 주제는 간호사 되어가기였으며, 5개의 주제를 통해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미래의 간호사를 그려 봄, 베품의 삶, 관계의 성장, 만족감을 느끼게 됨, 삶의 반추였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 대학생의 감사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의 운영과 방안,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핵심어 : 감사일기, 간호 대학생, 간호역량, 질적 내용분석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deeply explore the experiential meaning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gratitude journal wri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students to develop appropriate nursing competency in the era of convergence by improving nursing work performance by allowing nursing students to write a gratitude journal and to have proper nursing professionalism. This study applied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Graneheim & Lundma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2 years old and 6 students in the 3rd grade of nursing at a university in Gangwon-do who had experience in writing a gratitude journal. Data collection took pla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to April 2019.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ore theme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writing a gratitude journal was 'becoming a nurse', and it was derived from five themes. The five themes were 'imagining a future nurse', 'life of giving', 'growth of relationships', 'feeling satisfaction', and 'rumination of life'. This is to suggest a study on the plan, opera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courses that can increase the gratitude tend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rough follow-up studies.

Keyword : Gratitude Journal,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competenc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¹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Chuncheon, Gangwon-do, Korea [Professor]
e-mail: light7492@hsc.ac.kr

Received(November 15, 2020), Review Result(1st: December 10, 2020, 2nd: January 23, 2021), Accepted(February 5, 2021), Published(February 28,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간호사는 직업여성들 중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 의식과 직업의식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 리듬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1].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및 병원 안의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의 다양한 관계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직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간호사가 직면하게 되는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데,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 외적 자원이 풍부할 때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간호업무의 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2].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 이슈들이 쟁점화되고 있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심리 역량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향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며 공감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이렇듯 간호사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간호 학생들을 위해 간호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였던 간호 대학생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낯선 병원의 환경과 함께 동료 학생, 교수, 임상 현장의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병원에서의 간호 학생으로서의 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임상 수행 능력도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간호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을 나타내는 환자 중심의 전문적 책임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도 향상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5].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간호학생 스스로가 갖는 간호사의 이미지,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간호 전문직관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이와 함께 간호 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7]. 이를 위해 간호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사일기 작성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질적 내용분석 연구 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8],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에게 감사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여 간호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을 갖도록 하여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간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발전된 후기 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Graneheim과 Lundman이 제시한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체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9]. 질적 내용분석은 철학적 배경은 담고 있지 않으며 연구 질문을 축으로 하여 자료 본연의 의미에 주의를 집중하는 귀납적 분석방법이다 [9][10].

2.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감사일기 작성 경험이 있는 강원도 소재 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22세, 6명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은 “감사일기 작성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로 시작하였으며 주제에 맞게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하며 추가 질문을 이어나갔다. 참여자 스스로의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질문 형태는 개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 사생활과 면담 내용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용한 연구실, 휴게실 등에서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자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면담 시간은 주 1회, 매 회 약 1시간 내외로 면담 횟수는 평균 약 2~3회였다.

자료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담 내용은 모두 레코딩 한 후, 면담을 마친 후 바로 필사하였다. 면담 내용 중 재 질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면담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진가를 입증하기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Guba와 Lincoln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

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으며, 참여자의 면담과 연구의 분석은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11].

2.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Graneheim과 Lundman의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단계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문을 확인하였다 [9][12]. 2단계에서는 진술문의 중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구를 코드화한 후, 추상화 작업을 통해 해석적 코드를 도출하였다. 3단계는 해석적 코드를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모든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코드, 해석적 코드,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2.5 연구 수행에 따른 윤리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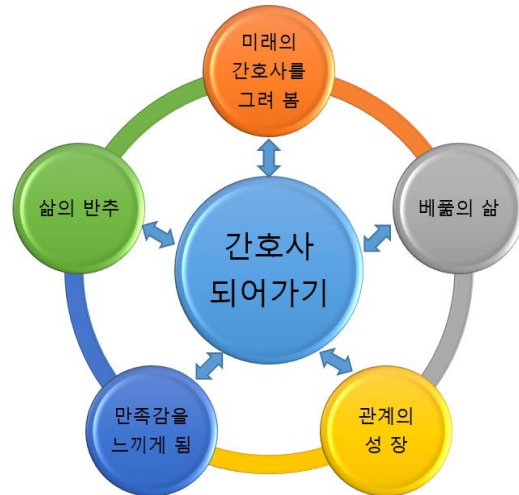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및 모든 면담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였다. 개인별 심층 면담의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생활 및 면담 내용의 보호, 익명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동의를 확인한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녹음 및 필사 자료는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할 것이며, 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의 평가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근거로 한다 [11]. 면담 시 개방형 질문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생각, 감정 등을 차단하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여 사실적 가치가 확보될 수 있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 감사일기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적용성을 유지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과정을 세세히 기술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삽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삽입하여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핵심 주제는 간호사 되어가기였으며, 5개의 주제를 통해 도출되었다. 5개의 주제는 미래의 간호사를 그려 봄, 베품의 삶, 관계의 성장, 만족감을 느끼게 됨, 삶의 반추였다.



[그림 1] 감사일기 작성 경험에 대한 간호 대학생의 경험

[Fig. 1] Nursing College Students's Experiences on Gratitude Journal

3.1 미래의 간호사를 그려 봄

주제 1에서 참여자들은 감사일기 작성을 해나가면서 간호사로 성장하게 될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주제 내에서의 소주제는 “미래를 생각하며 꿈꾸게 됨”이었다.

3.1.1 미래를 생각하며 꿈꾸게 됨

참여자들은 감사일기를 적어 나가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꿈꿔보게 되고, 삶 속에서의 경험들이 장차 간호사로 성장하여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이런 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1)

3.2. 베짱의 삶

주제 2에서 참여자들은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하면서 평소 깨닫지 못했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병원 실습 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소주제는 “삶 속에서 묻어나는 소소한 감격”, “적극적인 자세가 형성됨”이었다.

3.2.1 삶 속에서 묻어나는 소소한 감격

참여자들은 감사일기를 통해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은 큰 사건을 경험해야 갖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나 감사일기를 적어 나가면서 삶의 소소한 부분들에서 까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맨 처음 이걸 쓸 때 큰 이벤트 같은걸 써야겠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좀 조그만 일에도 되게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할머니께 말을 많이 걸어서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할머니께서 마지막 날 즈음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조그만한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큰 거, 큰 일 같은 거만 도움이라고 생각했지... 조그만한 거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못해봤는데, 이걸 쓰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경험을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참여자2)

3.2.2 적극적인 자세가 형성

감사일기 작성은 참여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함양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습 동안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각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대신 나서서 해야 될 일, 그런 것 해주고... OO실습할 때 되게 할 게 많았는데... 다들 눈치 보면서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바이탈 할 때 먼저 가서 재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참여자1)

3.3 관계의 성장

주제 3에서 참여자들은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는 긍정적인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본 주제 내에는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됨”, “따뜻한 인간애를 경험함” 소주제가 포함되었다.

3.3.1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됨

참여자들은 병원 실습 교육을 받는 동안 함께하게 된 동료 학생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는 실습하는 애들이랑 협조해서 바이탈 재고, 검사 갈 때 환자랑 동행해서 같이 가거나, 자리에 돌아왔을 때도 눕는 거라든지 같이 도와드리고, 검사 갈 때도 같이 가고...”(참여자3)

3.3.2 진심어린 인간애를 경험함

실습 중 교육을 담당하는 선배 간호사들에게도 평소에는 당연시하던 것 이었지만,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되면서 진심어린 인간애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쁘신데 전반적인 것 알려주시고, 라운딩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실습하기에 되게 적절했던 곳...”(참여자4)

3.4. 만족감을 느끼게 됨

주제 4에서 참여자들은 감사일기 작성 경험을 통해 자신이 행한 간호가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못하시는 환자 분이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한 도움의 손길이 환자 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 분들의 상태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본 주제의 소주제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실습”, “실력이 향상되는 뿌듯함”이었다.

3.4.1 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실습

참여자들은 자신의 작은 손길을 통해 환자들에게 귀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의 간호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 분이 다리 다치신 분이라 휠체어 타시고 가셔야 하는데 계속 도와드렸던 말이에요. 그런데 손녀 같은 애들이 도와줬다며 약간 울먹, 울먹하면서 말씀하셔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참여자6)

3.4.2 실력이 향상되는 뿌듯함

참여자들은 환자 분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뿌듯함과 함께 간호사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뿌듯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기술과 태도가 향상되어 짐을 느끼고 있었다.

“실습 마지막 날 실습할 때 계속 바이탈 재고 백케어하고 목욕시켜드리고 그랬던 환자 분들 중에 여러분 3~4분이 몸이 회복돼서 가시는 거예요. 아~ 저 분들도 몸이 회복돼서 가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괜히 한 거는 없지만 뿌듯한 거. 그런 거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분 들이 회복돼서 가시니까...”(참여자5)

3.5. 삶의 반추

참여자들은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하면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주제 5에서는 “삶을 되돌아 봄”,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감을 갖게 됨”이라는 소주제가 확인되었다.

3.5.1 삶을 돌아 봄

감사일기 작성은 참여자들에게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기 쉬운 소중한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렇듯 귀한 삶의 조각들을 차곡, 차곡 되 뇌이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걸 쓰니까 아~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아~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배울 수 있는 거랑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할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참여자4)

“내가 뭘 했지. 뭘 받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작은 거에 감사하게 쓰게 되는 거 같아요.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거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짝 기분이 좋았던 거 있지...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참여자5)

3.5.2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감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하루의 삶을 잘 정리하게 되면서 마무리와 함께 그 날의 마침표를 찍게 되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일기를 작성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새로운 열심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제 스스로한테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냥 개인 적으로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써보고 하니깐 제 스스로 정리도 되고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1)

“적기 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적으면서는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니까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2)

“이걸 쓰면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쓰면서 정리가 되는... 뭔가 하루

를 마무리하고 다음 실습을 준비해야지. 마침표 개념이 생긴 거 같아요.” (참여자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감사일기 작성을 해나가면서 간호사로 성장하게 될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감사일기를 적어 나가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꿈꿔보게 되고, 삶 속에서의 경험들이 점차 간호사로 성장하여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 학생들의 감사일기 작성 경험이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하는 밑 걸음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감사일기 작성 경험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며 그려봄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즉, 감사일기 작성 경험이 간호 대학생들에게 풍성한 내, 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참여자들은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하면서 평소 깨닫지 못했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병원 실습 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삶 가운데에 잊혀 지나가게 되는 작은 것들에서도 마음에 감격을 받고 감사하게 되었고, 나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병원 실습 교육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일기 작성 경험이 긍정 심리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곧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3].

감사일기 작성을 통해 참여자들은 실습 교육 시에도 동료 학생, 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선배 간호사들에게 까지도 따뜻한 인간애를 경험하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역량 중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 함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낮은 병원 환경과 함께 동료 학생, 교수, 임상 현장의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병원에서의 간호 학생으로서의 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임상 수행 능력도 낮아지게 됨을 보고하고 있어 감사일기 작성이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간호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도 증진됨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7].

본 연구에서 감사일기 작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은 손길을 통해 환자들에게 귀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다. 자신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환자들에게 선

한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말씀을 못하시는 환자 분이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한 도움의 손길이 환자 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눈물을 통해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환자 분들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간호사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뿌듯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들은 감사일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며,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 및 태도가 향상되면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모습을 하나, 둘씩 갖추어가며 성장하고 있었다. 즉, 감사일기 작성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키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해 간호 전문직관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간호 대학생들은 감사일기를 작성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 하게 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삶의 조각들을 차곡, 차곡 되 뇌이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 짓게 되어 그 날의 마침표를 찍게 되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사일기 작성이 간호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공감능력과 자기 효능감이 간호 대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4].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남자 간호 대학생들은 성적 차별 및 그로 인한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수 파트 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발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 환경은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반전의 매력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사일기 작성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긍정의 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3].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감사일기 작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며 꿈꾸게 하고 삶 속에서 묻어나는 소소한 감격을 경험하게 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성장과 사랑의 나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실력이 향상되는 뿌듯함을 경험하게 하였고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6명의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 지역의 다양한 대상자들을 통한 반복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또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 대학생의 감사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의 운영과 방안,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J. Y. So, Y. J. Ha,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the career commitment of general hospital nurs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5, May 2020, pp. 341-351, doi: 10.15207/JKCS.2020.11.5.341.
- [2] Y. J. Jeong, I. S. Cho, "The effect of nursing performance, job stress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3, June 2020, pp. 613-624, doi: 10.12925/jkocs.2020.37.3.613.
- [3] H. H. Kang, S. A. Won, J. S. Kim, "The influence of authentic leadership on team creativity :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8, August 2020, pp. 341-350, doi: 10.15207/JKCS.2020.11.8.341.
- [4] M. Y. Mun,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3, February 2020, pp. 277-292. doi: 10.22251/jlcci.2020.20.3.277
- [5] Y. S. Song, J. 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May 2020, pp. 157-166, doi: 10.5977/jkasne.2020.26.2.157.
- [6] H. J. Jang,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3, June 2020, pp. 635-648, doi: 10.12925/jkocs.2020.37.3.635.
- [7] Y. S. Kim, Y. S. Park, "Study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of nurs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4, July 2020, pp. 765-777, doi: 10.22251/jlcci.2020.20.14.765
- [8] S. Cavanagh, "Content analysis: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Nurse Researcher*, vol. 4, no. 3, May 1997, pp. 5-13, doi: 10.7748/nr1997.04.4.3.5.c5869.
- [9] U. H. Graneheim, B. Lundma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2, February 2004, pp. 105-112, doi: 10.1016/j.nedt.2003.10.001.
- [10] H. F. Hsieh,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5, no. 9, November 2005, pp. 1277-1288, doi: 10.1177/1049732305276687.
- [11] E. G. Guba, Y. S.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1989.
- [12] M. R. Won, Y. J. Choi,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mentors' experiences of peer monitoring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vol. 51, April 2017, pp. 8-14, doi: 10.1016/j.nedt.2016.12.023.
- [13] M. H. Kim,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men in nursing as a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1, February 2020, pp. 223-229. doi: 10.17703/JCCT.2020.6.1.223.